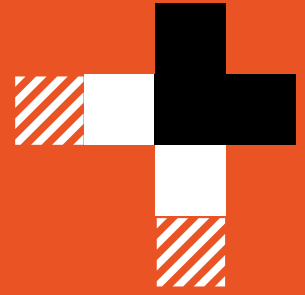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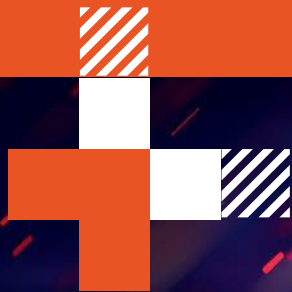


Issue Brief



# 트럼프 2.0 시대 도래에 따른 영향 점검

삼일PwC경영연구원  
November 2024



삼일회계법인

# 1. 대선 결과 분석

## Focus

## 대선 전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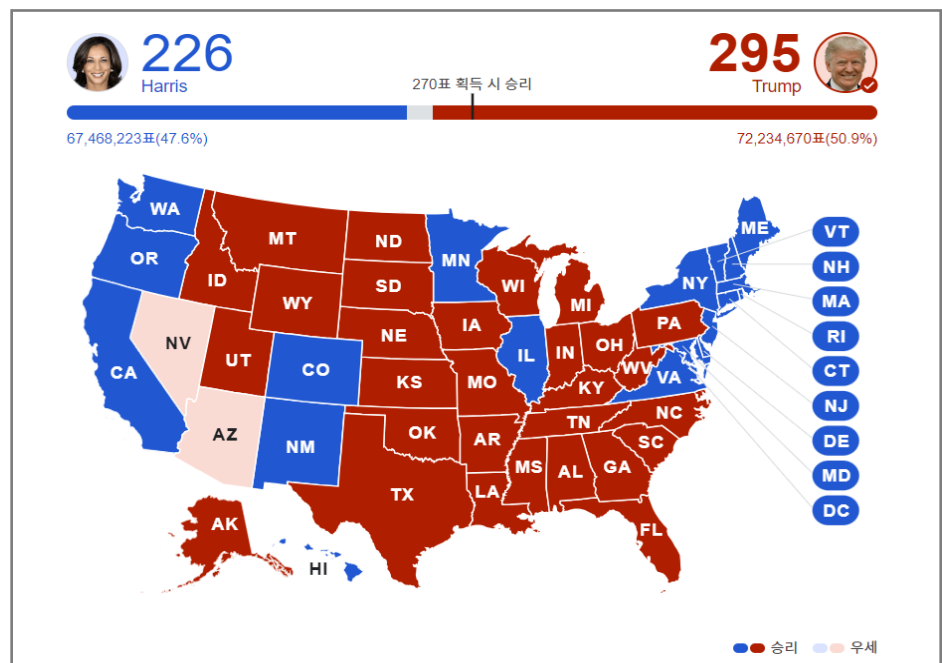
- **트럼프, 선거인단 과반 확보로 美 대통령 당선 확실시**
  - 미국 대선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 트럼프가 295명 확보 ('24.11.07 오전 10시 기준)해 당선 확정
    - 네바다,애리조나 등에서 개표 결과 나와야 하나, 해리스 패배 승복 발표한 만큼 이변 없을 전망
- **주요 서방언론 희망 섞인 사진 선거예측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심은 트럼프를 최종 선택**
  - 서방 유력 언론들 개표 막판까지 해리스 우세 전망
    - NYT, 이코노미스트 등 해리스 지지 선언('24.10), 선거당일 56%로 해리스 승률 예측
  - 개표 결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던 7개 경합주에서도 모두 트럼프 선택
    - 경합주 7개(트럼프 득표율): 조지아(50.7%), 미시간(49.8%), 노스캐롤라이나(51.1%), 펜실베이니아(50.5%), 위스콘신(49.7%), 애리조나(52.1%)\*, 네바다(51.5%)\*
    - (\*) 현재 개표 진행중('24.11.7)

## View Point

- ✓ 글로벌 저성장 지속으로 자국 우선주의 확산되며, 미국인들도 'MAGA\*\*' 강조하는 트럼프 선택
  -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문제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저소득층과 히스패닉도 미국 중심의 경제 성장과 강경 이민 정책 제시한 트럼프로 표심 선회
  - 민주당 강세지역인 블루월 3곳(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도 제조업 쇠퇴 영향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약속한 트럼프 선택

\*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줄임말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

## 美 47대 대선 결과 ( '24.11.07, 오전 10시 기준 )



출처: Associated Press

## 2. 트럼프 정부 주요 정책 기조



### 3不의 시대

예측불가

정책 간 상충\*

불확실

게임의 룰

불안정

거시경제/금융시장

\* 반이민·고율관세는 인플레이션 유발하며, 트럼프 정부의 저금리·약달러 정책과 상충

\* 감세는 재정건전성 확보 정책과 상충

# 3. 트럼프 정부 정책 및 한국에의 영향도 점검

## 1 외교·사회: 미국 국익 최우선

- 강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무역장벽 및 안보 유지 부담 높아질 전망

### 도널드 트럼프 주요 외교/사회 공약

#### [통상]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조

- 미국 우선주의 강조. 미국 패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에 대한 규제 및 관세 강화
- 양자 협상 및 상호성원칙 고수
  - 양자협상(Bi-Lateral): 다자간 협상이 아닌, 국가간 일대일 협상. 우월한 지위 활용해 미국 이익 극대화
  - 상호성 원칙(Reciprocity) :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에 부과

#### [기술] 대중국 견제 기조: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철저히 분리

- 중국산 상품에 60% 이상 관세 부과
- 2000년 이후 지속된 중국 MFN(최혜국 대우) 및 PNTR(항구적 정상무역) 철폐

#### [안보] 동맹국 역할 및 비용 압박

- 고립주의(Isolationism: 미국 이익 및 안보와 관련 없는 타국 문제 간섭 최소화) 정책 기조
- 동맹국 역할 압박 및 방위비 분담 증액

#### [대북] 협상통한 문제 해결 의지

- 북-미 관계 개선 및 핵 협상 의지, 다만 북한 대화 거부 시 최대 제재

#### [이민] 불법이민 강경 정책

- 불법이민 근절위해 국경봉쇄 및 불법이민자 송환. 다만, 합법적 기준 충족 시 이민 장려

### 한국에 미칠 영향?

#### Positive

-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으로 한국 외교 및 안보 상황 완화 가능성

#### Negative

- 중국 견제 기조 아래, 외교안보·첨단기술 분야 등의 한-중 관계 악화 우려
-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고관세, 방위비 증액 등 부담 증가

- 이전보다 강도 높은 미국 보호주의와 관세 장벽 → 한국 수출 부문 부담 가중
- 친환경 정책 후퇴로 전기차·이차전지·친환경 에너지 타격 vs. 정유화학·원자력은 호재



### 도널드 트럼프 주요 경제 공약

#### [무역] 보편·상호적 관세

- 중국산 60%, 한국 포함 나머지 국가 수입 상품 10-20% 보편 관세 부과
- 자동차 100% 관세 등 미국 경제에 방해되는 해외 수입품에 한해 대폭적 관세 인상 예고
- 인상된 관세를 재원으로 관세 국부펀드 조성 → 국부펀드로 미국 발전을 위한 제조업·국방·의료 연구 지원

#### [기업] 법인세 인하 및 저금리 유도

- 미국 내 제조업체 법인세율 21% (현행) → 15% 인하
- 저금리 유지해 기업 투자 확대

#### [공급망] 온쇼어링 중심

- 생산거점 미국 회귀하도록 정책화 → 제조대국 도약, 고용 증진 계획
- 행정부 내 '제조업 대사' 신규 임명해 적극적 공장 유치, 리쇼어링 기업 대상 '특구' 신설

#### [환경] 친환경 정책 후퇴

- 파리기후협정 탈퇴 → 풍력 발전 보조금·전기차 의무화 등 철폐, 원자력 발전 확대
- 화석연료 산업 부흥 및 화석연료 기업 대상 과도한 세금 부담 축소 계획

#### [산업] CHIPS 유지하나 해외기업 대상 관세 부과

- CHIPS법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조정 및 한국 등 반도체 강국 대상으로 관세 부과 예고

#### [보조금] IRA 인센티브 폐지 또는 축소

- IRA 생산 인센티브 축소
-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또는 폐지)

#### [물가] 에너지 가격 인하

- 미국산 석유·천연가스 자원 발굴 집중해 에너지 가격 인하 → 유가 하락, 생산비 감소 유도

### 한국에 미칠 영향?

#### Positive

- 친환경 기조 약화로, 정유화학업체 부담 감소. 원자력 확대 시 국내 원전기술 수출 가능
- IRA 폐지에 따라 약가 인하 압력 완화 및 바이오시밀러 확대 유도 → 국내 업체의 시장 확대 기회 증대
- 저금리 유지 정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 Negative

- 모든 국가에 보편·상호적 관세 부과할 계획으로, 한국 수출 타격 → 한국 20% 보편 관세 부과할 경우, 전체 수출액 448억 달러(63조원) 감소 추산
- 한미 FTA, 미국-캐나다-멕시코 무관세 협정 등 재협상 가능성 높아짐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 증대
-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기조로, 한국 기업의 생산 부담 가중
- IRA 인센티브 축소(폐지) 정책으로 배터리, 전기차, 기계(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일부 산업 축소 가능

- IRA 축소(폐지) → 전기차·2차전지 성장 제동 vs 제약은 바이오시밀러·CMO 위주 성장 가능
- 화석연료 에너지로의 회귀 → 정유화학 및 원전 호재
- 동맹국간 안보 동맹 약화 → 지정학적 갈등 지속되며, 각국의 국방비 증가로 우주·방위산업 성장

 도널드 트럼프 주요 산업별 공약

주요 분야	주요 정책	한국 영향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PS법 변화 예상</li> <li>• 첨단공정, 지식재산, 인력 수출 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관세 부과 영향으로 부담 증가</li> <li>• 非미국 국가 CHIPS 지원 조항 수정될 경우, 혜택 축소 가능성</li> </ul>
2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폐지 또는 축소</li> <li>•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로 전기차 수요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배터리 매출 감소</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시장 관세 장벽 강화</li> <li>• 무역 규제 확산 등으로 대미 진출 제약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관세 및 무역 규제로 한국 기업 부담 증가</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FÉ* 연비 규제 최소 수준 완화 또는 폐지</li> <li>• 중국산 등 해외에서 생산한 자동차 높은 관세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증가로 대미 자동차 수출 약화</li> </ul>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사 자발적 가격 조정 유도</li> <li>•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통한 경쟁 강화</li> <li>• 필수약품 미국 내 생산 유도 위해 관세 조정 및 무역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가인하 압박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li> <li>• 한국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CMO) 기업 사업 확대 기회</li> <li>• 통상 절차 관련 불확실성 존재</li> </ul>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석연료 규제 철폐로, 화석연료 및 화력발전 관련 기계 장치/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 하락</li> <li>• 석유 등 전통적 발전원 부흥 정책 관련 수요 증가</li> </ul>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상호적 관세 통한 강한 보호무역주의</li> <li>• 석유 개발 및 생산 규제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관세 및 무역 규제로 수출 기업 부담 증가</li> <li>• 화석연료 규제 축소로 석유 기반 제품 등 활성화</li> </ul>
우주/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크라이나 지원금 미국 방산 업체 지급</li> <li>• 우주 산업 우위 선점 정책 적극 추진</li> <li>• 동맹국 국방비 지출 확대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우크라이나향 방산 수출 둔화</li> <li>• 동맹국간 국방 관련 협력 약화 가능 → 자국 우선주의로 국방비 증가 추세 지속</li> <li>• 우주분야 첨단 기술 확보 韓기업의 미국 우주 산업 진출 기회 확대</li> </ul>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행정명령 폐지** 등 빅테크기업 규제 축소 - 일론 머스크 규제혁신위원장 선임 예고</li> <li>• AI 기업 투자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AI 우위 확보 시, 고성능 AI 기술 확보한 韓기업 반사이익</li> <li>• 미국 AI 기업 제휴 통한 AI 서비스 기회 확대</li> </ul>

(\*) CAFÉ: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기업의 당해 년도 생산 자동차 평균 연비 제한

(\*\*) AI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해 정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규제 조치로, 바이든 2023년 11월 발령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세제 변화 및 영향도

- ▶ 트럼프 선거공약집 'Agenda 47' 및 각종 선거유세 시 언급한 사항,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개정안 고려 시 조세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
- ▶ 현재까지 제시된 조세 정책이 미국 입법부를 통과할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법인세

- Tax Cuts and Jobs Act(TCJA, 감세와 일자리 법) 중 법인세 조항 유지 및 과거 만료 조항 일부 복원
  - '18년 발효된 TCJA 연방 법인세 인하(과거 35% → 현행 21%) 조항 유지
  -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Bonus Depreciation 조항('22년 말 만료) 복원  
(\*미국 내 생산 기업의 중장비 및 기타장비(Heavy Machinery and Other Equipment))
-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인하
  -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은 15%까지 추가로 인하
- Inflation Reduction Acts(IRA) 철폐 내지 축소
-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금 부과

## ■ 관세

-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20% 추가 부과 및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추가 부과
-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통해 무역상대국과 동일한 관세 부과
- 무역 결제통화로 달러 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게 관세 100% 추가 부과
- 멕시코산 차량 및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차량제조업체에 100% 추가 관세 부과

## ■ 국제조세(공화당 정책)

-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GILTI): '26년 유효세율 13.125% → 12.5%로 인상폭 완화
-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FDII): '26년 유효세율 16.4% → 12.5%로 인상폭 완화
-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BEAT): 현행 유효세율 10.5% → '26년 기준 12.5%로 인상 유지

### GIL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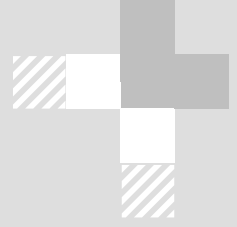
미국모회사의 해외자회사 소득 중 해당 기업의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미국모회사에 과세하는 제도

### FDII

미국기업이 창출한 해외소득 중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

### BEAT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미국 자회사 등이 해외 모회사 등 관계사에 지급하는 특정 비용에 대해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불인정하여 최소 10%의 유효세율이 되도록 하는 제도. 민주당 및 바이든 행정부는 SHIELD 규칙을 도입하여 폐지하고자 함



## ■ 미국 현지 진출기업에 미칠 영향 예상(법인세·국제조세)

법인세	연방 법인세율 인하(21% → 20%)로 미국 현지 진출법인의 세부담 완화
	특히, 제조기업의 경우 추가 인하 법인세율(15%) 적용을 위해 미국 노동자 고용 유인 확대
GILTI	현행(10.5%) 대비 높아지는 GILTI 유효세율로 인해 미국지주회사를 통한 북미·중남미 투자구조를 가진 국내 글로벌기업의 경우, 세부담 증가 예상
	그러나 유효세율 인상폭이 이전보다 축소된다면 ('26년 유효세율 13.125% → 12.5%) 세부담 증가 정도가 일부 경감될 수 있음
FDII	현행(13.125%) 대비 높아지는 FDII 유효세율로 인해 미국거점을 통한 해외 수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수출구조의 세무 효율성 저하 예상
	그러나 유효세율 인상폭이 이전보다 축소되거나 현행보다 낮아진다면 ('26년 유효세율 16.4% → 12.5%)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IRA 축소	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기업 보조금 축소·폐지로 실적 하락 가능성
기타	Bonus 감가상각 조항 복원으로 현지 생산법인의 설비투자 유인 확대

(\*) 상기 세율은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의 조세정책에 따라 가변적이며, 확정치가 아님에 주의

## ■ 미국향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 예상(관세)

보편 관세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 부과로 수출기업 가격인하 및 마진압박 상승
추가 관세	상호무역법 등을 근거로 각종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트럼프 2.0은 기존 대비 더 광범위한 범위의 공격적 통상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교란 우려**
  - 트럼프 1.0은 미-중 무역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베트남·인도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완화적 정책
  -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에 따라, 트럼프 2.0은 신흥국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전망
  - 이에 따라, 탈중국 후 새롭게 형성된 공급망이 재차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 View Point

- ✓ **공급망 리스크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산기지 다변화 필요**
- 우리기업의 신흥국 통한 원료/중간재 조달에서 미국의 무역통제 조치 대상이 될 우려 있는 품목에 대한 재점검 → 제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 확보 여부 검토
- 중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혜택 부여 필요

- **미국의 新 통상 조건(한-미 FTA 재협상 등)제시 가능성 증가**

- 미국 무역 적자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에 불과하나, 증가폭이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

### View Point

- ✓ **바이든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증가한 품목은 통상 조건 변화 대비 필요**
- 자동차, 가전 등에 품목에 대한 대응책 마련

-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 트럼프 정부는 약달러-저금리를 지향하나, 시장의 안전자산(달러) 선호 현상 증대로 강달러-고금리 재현 가능

### View Point

- ✓ **필요 시 정부의 금융시장 적극적 개입 가능하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준비 필요**
- 통화정책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채 관리가 중요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고 관리 필요

- **산업 전반 개편**

- 친환경 정책 후퇴로 산업 전반 개편: 친환경 산업(전기차, 대체에너지 등) 약재 vs. 석유화학 및 원자력 호재
-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리쇼어링
-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AI 투자 확대

### View Point

- ✓ **한국 주요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한 기회로 활용 가능**
- 화학: 탈중국화 강화에 따라 한국의 반사이익 가능. 친환경 정책 후퇴에 따른 구조조정 시간 획득
- Tech: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지원 필요
-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강점에 있는 기술이나 부품 수출 기회 모색

## Author Contacts

**이은영** 상무

삼일PwC경영연구원

eunyoung.lee@pwc.com

**오선주** 수석연구위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unjoo.oh@pwc.com

**김호진** 책임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hyojin.h.kim@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www.samil.com](http://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11W-RP-067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